

공동체 미디어의 담론 흐름과 연구경향

학술논문의 주제, 방법, 쟁점에 대한 메타분석을 중심으로*

강진숙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2000년대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는 다양한 이용자들의 참여를 통해 활성화되었고, 정치적 공론장이자 일상적인 유희의 놀이터가 되어왔다. 이를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용자들은 참여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상의 삶 정치를 기획하는 새로운 주체상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와 관련한 현상들이 학술담론의 지형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진단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공동체 미디어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의 개발을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 학술담론에 나타난 주제, 방법, 그리고 쟁점에 대한 메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역사적으로 축적된 학술 담론들의 경향성과 특이점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국내 언론학계의 학술등재지 논문들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언론 유관학회들 중에서도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등에서 발간하는 학술등재지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선정 이유는 다른 학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술지 발간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관련 학술담론들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키워드 입력은 여러 차례의 다양한 시도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공동체’와 ‘커뮤니티’를 투입한 결과 총 53건의 연구논문들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공동체 미디어 관련 논문이 처음 게재된 2001년 이후 2016년 11월 현재까지 축적된 과거의 학술담론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론과 방법론,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KEYWORDS 공동체, 커뮤니티, 메타분석, 소수자, 이주민 미디어

* 이 논문은 2016년도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학술대회 기획논문 발표문을 전체적으로 수정, 보완한 논문입니다. 세심한 지적과 조언을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jskang1@cau.ac.kr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000년대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나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담론은 다양한 입장을 통해 접근되어 왔다. 온라인 커뮤니티가 인터넷, SNS, 스마트폰 등을 통해 연결된 사이버 공동체의 형태라면, 공동체 미디어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로서 다양한 지역 공동체나 소수자 집단의 미디어 활동 등을 망라하는 의미를 지닌다. 보다 구체적으로 볼 때, 온라인 커뮤니티 담론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가 공동의 주체와 목적을 위해 상호관계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공간이라는 입장(김유정·조수선, 2001), 그리고 다양한 이용자들의 참여를 통해 정치적 공론장이자 일상적인 유희의 놀이터가 되어 왔다는 입장(김지연·강진숙, 2015) 등에 근거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용자들은 참여민주주의를 경험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상의 삶 정치를 기획하는 새로운 주체 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터넷, SNS, 스마트폰 등을 통해 연결된 온라인 커뮤니티는 투표 현장의 인증 샷을 공유하거나 지하철에서 독서 플래시 몹(Flash Mob)을 실천하는 인간 플랫폼이 된다. 이미 이용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부분이며 “정보기계”(Kittler, 1986, p. 281)로서 다른 정보기계들과 결합하고, 유희하고, 정치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Kittler에 따르면, 정보기계(Informationsmaschine)란 인간을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기계-주체로 파악하는 이중적 존재의 위상을 의미한다(강진숙, 2012). 즉 인간은 역사의 실천주체나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물질, 기술, 문화에 기반한 기록시스템의 한 구성체인 것이다. 어느 특정한 정치인이나 파워 블로거(Power Blogger)들에 의해 이용자들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용자 스스로 커뮤니티의 정보기계가 되어 현실 문제들을 흡입하고 사건과 상황들을 규정하는 욕망기계들이 된다.

또 다른 한편, 온라인 커뮤니티를 소수자 혐오의 공간으로서 규정하고 비판적 접근을 시도하는 입장들이 존재한다. 즉 온라인 커뮤니티가 소수자 혐오현상을 표출하는 사회적 문제의 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온라인 여성 혐오는 ‘김치녀’, ‘된장녀’, ‘성과녀’ 등의 부정적 호명이나 ‘베이글녀’, ‘엘프녀’, ‘G컵녀’ 등의 긍정적 호명을 통해 표현된다(황슬하·강진숙, 2014). 즉 외모와 ‘개념 유무’의 잣대로 여성의 신체와 태도를 선/악의 도덕적 규범으로 구분하고, 이 중에서 ‘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디지털 언어의 법정으로 소환되고 처벌이 가해진다. 문제는 이러한 ‘여혐’ 현상이 비단 여성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 이주민, 노인, 장애인 등의 소수자 전반으로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주민 미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술담론들은 비판을 넘어서는 소수자들의 주체적, 능동적 대응을 강조한다(김유정 외, 2012; 안진·채영길, 2015; 정의

철, 2015). 이주민이나 노인계층에 대한 과 어휘화된 범죄자 은유나 폭력사례들은 혐오현상의 위험성을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혐오현상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서 공동체 미디어나 소수자 미디어의 위상을 점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기술적 발전과 연결망에 대한 과도한 낙관이나 소수자 혐오현상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공동체 미디어의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고령층의 이용자들도 이주민 미디어나 공동체 라디오 등을 통해 주체적인 공동체 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체 미디어와 관련된 사건과 현상들이 학술담론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진단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공동체 미디어 연구의 이론과 방법론을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선행 학술담론에 나타난 주제, 방법, 그리고 쟁점에 대한 메타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역사적으로 축적된 학술 담론들의 경향성과 특이점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국내 언론학계의 학술등재지 논문들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언론 유관학회들 중에서도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등에서 발간하는 학술등재지들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선정 이유는 다른 학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술지 발간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관련 학술담론들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공동체 미디어 관련 논문이 처음 게재된 2001년 이후 2016년 11월 현재까지 축적된 과거의 학술담론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론과 방법론, 그리고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2. 공동체 미디어의 개념과 유형, 참여주체 논의

1) 공동체 미디어의 개념과 쟁점

공동체 미디어와 관련된 담론은 연구자들마다 다양한 관점과 접근 방법 속에서 서로 다른 형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담론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입장으로 압축된다. 즉 공동체 미디어의 초점을 각각 ‘지역 공동체’, ‘이주민 미디어’, 그리고 ‘다중의 실천’ 등에 둔 학술담론의 입장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선, 공동체 미디어의 논의는 ‘지역 공동체’라는 존재론적 전제가 있어야 한다는 관점이다. 반명진과 김영찬(2016)에 따르면, 공동체 미디어는 해당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과 당면한 지역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출현했다. 즉 공동체 미디어가 중

요한 것은 단지 콘텐츠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제작참여, 그리고 문화적 실천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공동체 미디어, 특히 공동체 라디오가 ‘대안 미디어’로서 다양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시각에 기초한다. 이와 관련해 김은규와 최성은(2013)은 공동체 라디오의 사회적 가치와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운영구조와 정책적 개선점이 요구되는지 언론학자 및 미디어단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심층인터뷰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대안 미디어의 위상을 환기시킨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도 지역공동체와 미디어 간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입장들이 발견된다. 예컨대, 케이블 TV방송국의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사례 10), 아시아 공동체와 문화정체성(사례 25), 항쟁의 에토스로서 공동체(사례 49), 인터넷 개인방송과 시청공동체(사례 52), 공동체 라디오와 지역공동체 구성원(사례 53)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공동체 미디어와 지역공동체의 상호 관계성을 고려한 접근 태도들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로, 공동체 미디어를 이주민 미디어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는 입장이다. 이주민 미디어는 ‘에스닉 미디어(ethnic media)’, ‘커뮤니티 미디어(community media)’, 다문화 미디어(multicultural media)’ 등으로도 표현된다. 정의철(2015)은 이주민 미디어가 주류 미디어에 저항하고 이주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전개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규정한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채영길(2013)은 이주민에 대한 주류미디어의 ‘우려: 그들’의 구별 짓기는 결국 외국인 혐오주의나 인종차별주의적 콘텐츠를 확대 재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주민 미디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선주민(원주민)’과 이주민이 함께 제작 참여하는 공동체 라디오가 다문화적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권능화’ 과정의 장소이자 공간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시각(안진·채영길, 2015)도 이와 문제의 결을 같이한다.

세 번째로, 공동체 미디어를 다중(multitude) 실천의 사유에 근거해 접근하는 입장이다. 네그리와 하트(Negri & Hardt, 2001/2008)에 따르면, 다중은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집합적 지성, 즉 다중지성을 구현하는 존재다. 즉, 다중은 사회적 지위와 부를 뒤로하고 공통의 관심사나 이슈, 혹은 취향을 중심으로 상호 연결된 주체성의 네트워크인 것이다. 이러한 다중의 기획은 새로운 노동의 시대, 즉 비물질적 노동의 시대적 특징을 배경으로 한다. 비르노(Virno, 2001/2004)가 강조하듯이, 노동과정에서 점차 언어를 통한 비물질적 소통의 중요성이 부상했고, 이를 통해 인간의 지성도 자본주의 생산시스템 속에 포함되는 환경이 도래했기 때문이다(강진숙·소유석, 2016). 즉, 현대적 다중의 토대는 언어, 소통, 정보, 정서 등의 비물질적 노동 행위를 통해 구축되고, ‘공통의 것’을 재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체 미디어의 참여를 다중 실천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다중의 위상을 어떻게 간주하는가 하는 점이다. 네그리와 하트의 경우, 다중을 생산적 노동을 수행하는 주체들로서 해방과 자유화의 역사적 전진을 가능케 하는 역능의 존재들로 규정된다. 한편, 비르노에게 다중은 ‘다수성’을 지닌 ‘개별자들의 연결망’으로서 새로운 주체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네그리와 하트의 의견과 유사점을 지닌다. 하지만, 비르노는 다중의 추동력인 일반 지성이 국가나 사적기업에 포획될 경우, 행정장치나 임금노동 속에서 ‘명령자’와 ‘수행자’라는 수직적 예속관계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양가적(兩價的)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강진숙·소유석, 2016). 이러한 입장들을 고려할 때, 공동체 미디어에 참여하는 다중의 위상과 역할 역시 양가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어떠한 ‘마주침’과 관계 맥락 속에서 다중이 존재하고 행위하고 있는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중이 공동체 미디어를 운영하고 제작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주체성을 현실화하고 삶 정치를 실현하는 반면, 또 다른 ‘명령자’와 ‘수행자’라는 위계적 역할 분할에 예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중의 공동체 미디어 참여와 역할은 구체적인 관계의 장과 결합 방식, 그리고 언어와 소통, 정서들을 창출하고 변이시키는 비물질적 노동, 즉 정동(affect) 노동을 고려할 때 더 풍부한 이해와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상의 논의를 고려할 때, 공동체 미디어와 참여주체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관점들이 도출된다. 우선, 공동체 미디어는 해당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과 미디어 콘텐츠 제작 참여활동이 서로 유기적 연계성과 상호작용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안 미디어로서 규정된다. 둘째, 공동체 미디어는 엘리트주의적 속성에 기반 한 주류 미디어의 구별 짓기 전략과 달리 이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용하는 이주민 미디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미디어는 다중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삶 정치를 실현할 가능성과 동시에 위계적 관계나 성별, 인종별 기준에 따른 다층적인 역할 분할에 예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가적 속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관점들의 공통점은 공동체 미디어, 이주민 미디어, 공동체 라디오 등 서로 다양한 호명들 속에서도 사회적 소수자와 다중의 주체성에 대한 기대와 실천의 가능성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2) 공동체 미디어의 유형과 참여주체 논의

그러면, 공동체 미디어의 유형과 참여주체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가? 이에 대해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소수자/이주민 미디어, 그리고 다중 미디어 등으로 분류하여 공동체 미디어의 유형과 참여주체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공동체 미디어를 온라인 커뮤니티의 유형에 특화시켜 이용자의 참여와 집단지성에 초점을 둔 접근 방식이다. 여기에는 다양한 커뮤니티의 유형들이 존재한다. ‘사이버 커뮤니티’, ‘인터넷 커뮤니티’, ‘온라인 서포트 커뮤니티’, ‘미니홈피 커뮤니티’,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문학 커뮤니티’, ‘인터넷 팬 커뮤니티’, ‘SNS 독서 커뮤니티’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개념들을 살펴보면, 먼저 ‘사이버 커뮤니티’는 사이버 공간에서 공동의 주제와 목적을 위해 참여하며 상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의견과 정보가 교류되는 이용자들의 공간이다(김유정·조수선, 2001; Fernback, 1997). 여기서 참여주체는 커뮤니티 참여를 통해 정체성을 지니는 존재로서 규정된다. 즉 커뮤니티의 참여주체들에게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소속감과 동질감의 획득인 것이다. 한편, ‘SNS 독서 커뮤니티’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에 기반을 둔 독서 공동체를 의미한다(김지연·강진숙, 2015). 예컨대, SNS의 특성을 살려 독서 실천을 정기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커뮤니티인 ‘책 읽는지하철(BookMetro)’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커뮤니티의 차별성은 단순히 책 소개나 온라인 활동에 제한된 다른 독서 커뮤니티와 달리 온-오프라인 독서활동을 지하철 공간에서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특히 2013년 1월 이후 2015년 6월 현재까지 지하철에서 플래시 몹 형태로 모여 각자 독서를 하거나 독서 인증 샷을 SNS에서 공유하는 등 직접적인 독서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있다(김지연·강진숙, 2015). 그 취지는 일방적인 계몽주의 독서 전략이 아니라 책 읽기의 경험을 공유하고 독서를 ‘놀이를 통한 유희’로서 즐기고 공유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SNS 독서 커뮤니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학술적 관심과 호명은 공동체의 연결망을 가변적인 장으로 보는 시각에 근거한다. 동시에 이용자의 행위를 더 이상 수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유희하는 주체로 긍정하는 관점에서 기인한다.

두 번째는, 공동체 미디어를 주류 미디어와 차별화된 이주민 미디어 혹은 소수자 미디어의 활동과 연관시켜 접근하는 방식이다. 우선, ‘에스닉 미디어’로 표현되는 이주민 미디어는 특정 지역 내 이주민이나 인종적·언어적 소수자를 위한 혹은 이들이 만드는 모든 미디어를 통칭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지역적 경계를 넘어 언어나 민족, 인종적 연원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미디어들도 포함된다(김유정 외, 2012; Matsaganis, Katz, & Ball-Rokeach, 2011). 김유정 외(2012)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동포 신문들은 에스닉 미디어로서 현지 지역 공동체의 소식들을 이야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이 신문들은 고국이나 고향의 소식을 전하기보다 ‘지금 여기’의 일상적 삶의 소식이나 사건, 혹은 미담을 기사화해서 한국 사회 내의 이주민이자 소수자로서 견지해야 할 사명의식과 자부심을 강화

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국동포 커뮤니티에 대한 선입견, 특히 공동체의 폐쇄성과 자국 중심주의 등에 대한 편견을 희석시킬 만한 단초를 제공한다. 이 중국동포 신문은 일반적인 뉴스 전달자가 아니라 이주민들이 스스로 스토리텔러가 되어 특정 경험을 공유하고 정체성 형성 및 공동체로의 편입을 촉진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수자 미디어의 측면에서 이주민의 미디어 이용과 미디어교육 경험을 연구한 정의철(2015)은 소수자 미디어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소수자 미디어는 주류 미디어의 자본과 권력 편향성과 달리 이주민 등 소수자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를 대변하며 미디어교육을 통해 주체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연구는 21명의 이주민 연구참여자와의 심층인터뷰와 현장관찰, 관계자 인터뷰 등을 수행하였다. 이은비와 강진숙(2013)이 지적했듯이, 이주민 방송 MWTV(Migrant World Television, <http://www.mwtv.or.kr/>)는 재정적 어려움과 활동가들의 이탈 등으로 난관에 직면해 있는 한편, 이주민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 마을공동체라디오, 대학방송과 연계한 이주민 미디어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수자 미디어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수자 미디어’ 혹은 ‘이주민 미디어’에 대한 학술담론이 공동체 미디어 관련 학술담론의 중심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주민 미디어에 비해 여성, 장애인, 노인, 성적 소수자 등 다양한 소수자들의 ‘차이의 연대’나 블록화에 관심을 둔 학술담론의 성과들은 더 많은 후속 연구를 요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의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소수자 미디어활동을 다룬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즉, 〈은빛동지〉의 노인 미디어 활동 사례를 분석한 장유정(2016)의 “노년세대의 갈등유형과 소수자 미디어교육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배상률과 이창호(2016)의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통한 여가문화 및 팬덤문화의 형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장애인 및 비장애인 미디어교육 교수자와 학습자와의 질적 인터뷰를 분석한 강진숙(2009)의 “장애인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식사례 연구”나 양정혜과 노수진(2012)의 “휴먼 다큐멘터리가 재현하는 장애인: KBS 인간극장에 나타난 장애인 내러티브 분석” 등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세분화된 소수자 미디어의 함의와 실천 가능성을 열어준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미디어 중에서도 공동체 라디오에 초점을 두고 다중의 정치적, 문화적 실천 행위들을 강조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선행연구들 중에서도 몇 가지 두드러진 사례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라디오 참여활동과 권능화(사례 48), 동작FM의 사례에 나타난 다중의 참여와 실천 행위들(사례 50), 마을공동체 미디어의 공동체 공론장 역할(사례 51)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연구들은 공

동체 미디어 자체의 작동방식과 다중의 참여방식들에 집중하여 공통의 정동노동과 라디오 방송이나 미디어교육 자료집 등 다중지성의 산물들과 실천적 합의들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소수자들 사이의 협력적 미디어교육 활동과 프로그램의 기획을 통해 지역 공동체나 마을의 삶 정치를 구현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길의 자양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요컨대, 공동체 미디어의 유형과 참여주체에 대한 접근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용자 참여를 비롯해 소수자와 다중의 참여 등 다양한 관점에 근거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공동체 미디어는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 소수자/이주민 미디어, 그리고 다중 미디어 등의 유형을 통해 세부적으로 연구되고 있고, 참여주체 역시 일반 이용자에서부터 이주민과 결혼이주여성 등의 소수자들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차이의 다양성과 주체성을 견지하고 상호 연결망을 형성하는 다중의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나 마을미디어 등의 사례들을 통해 최근에 부상한 연구주체들로서 주목되는 분야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의 학술담론을 조망할 때, 여전히 공동체 미디어의 참여주체들은 대학생이나 일반이용자 등 보편주의의 틀에 더 많이 정도되어 있다는 점은 성찰의 여지가 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와 미디어 연구는 시민사회의 담론 영역을 벗어난 제도권 내 학술담론의 영역에서는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지 못한 분야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과 세분화된 이용자계층의 이해와 권리보호를 고려할 때, 장기적 전망에서 학계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재정적 지원이 요구된다.

3.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공동체 미디어의 담론흐름과 쟁점을 분석하여 공동체 미디어와 관련된 다양한 학술적 논의들의 성과와 한계점들을 성찰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공동체 미디어 관련 학술담론의 주제들은 어떠한 특징과 변화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2. 공동체 미디어 관련 학술담론의 연구방법론은 어떻게 적용되었고, 그 특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공동체 미디어 관련 학술담론의 이슈와 쟁점은 어떻게 제기되고 있는가?

2) 연구방법

(1) 분석대상 선정 방법

선행 학술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학 유관 학술지를 선정하였다. 물론 공동체 미디어와 관련된 학술담론은 국내 학회의 학술발표대회나 공공기관의 세미나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왔다. 하지만, 본 논문은 양적인 분석보다는 주제와 방법론, 그리고 이슈 및 쟁점 등을 중심으로 한 질적 분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따라서 모든 방대한 학술발표논문들을 포괄하는 것은 후속 연구로 미루고, 여기서는 보다 집약적인 분석을 위해 학회의 학술등재지 논문들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내의 전통성을 지닌 언론학회들로서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등에서 발간하는 학술등재지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들 학회의 학술지를 선정하는 이유는 다른 학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술지 발간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관련 학술담론들을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선정 방법을 제시하면, 우선 학술담론의 자료추출 방법은 각 학회의 학술논문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공동체 미디어’ 관련 키워드를 투입하였다. 예컨대, ‘공동체’, ‘커뮤니티’, ‘공동체’, ‘공동체 미디어’, ‘공동체 커뮤니케이션’ 등의 키워드들을 여러 차례 투입한 결과, ‘공동체’와 ‘커뮤니티’ 외에는 유의미한 자료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이 두개의 키워드만 채택했다. 최종 자료 추출결과, 〈한국언론학보〉가 20건, 〈커뮤니케이션이론〉이 2건, 〈한국방송학보〉가 7건, 〈한국언론정보학보〉가 8건, 그리고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가 16건으로 총 53건으로 집계되었다.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학술대회 논문들이나 본 연구의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논문들을 선별해 분석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학술담론의 게재연도를 고려할 때, 〈커뮤니케이션이론〉을 제외하고 2001년에 공동체 미디어 관련 첫 번째 논문이 수록되었고, 이후 2016년 11월 현재까지 끊임없이 연구주제로 다루어졌다. 눈에 띄는 것은, 2006년(8건)과 2014년(6건)에는 3~4건에 그친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논문들이 게재되었다는 점이다. 최종 선정된 학술논문의 사례들은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체 미디어 관련 논문사례들은 다른 해에 비해 2006년(8건)과 2014년(6건)에 두드러지게 게재된 반면, 2003년과 2004년에는 가장 저조한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가장 높은 게재 건수를 나타낸 2006년에는 다양한 학술지들에서 공동체와 커뮤니티 키워드들이 모두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표 1. 공동체 미디어 관련 학술논문 사례 (발간 연도순)

사례	제목	연도	게재 학술지
1	사이버 커뮤니티로서의 인터넷 사이트 연구: 여성 사이트에 대한 탐색적 접근	2001	한국언론학보
2	지역공동체 구조와 뉴스프레임이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	2001	한국언론정보학보
3	가상 공동체의 구성 원리와 함의: 지구적 두뇌의 관점	2001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4	사이버 공동체에서의 윤리	2003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5	인터넷 커뮤니티 개설자의 개설동기와 커뮤니티 속성에 대한 연구	2004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6	고령층의 온라인 공동체 활동에 관한 연구: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를 중심으로	2005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7	사이버 커뮤니티 참여와 이용에 대한 이용과 충족 연구	2005	한국언론학보
8	가상 커뮤니티 이용 욕구(needs)와 행위(behavior)에 관한 연구: 대학생들의 인터넷 카페 이용을 중심으로	2005	한국언론정보학보
9	온라인 서포트 커뮤니티에서의 인지된 익명성: 계층적 개념구조와 공격인 자기노출에 미치는 영향	2006	한국언론학보
10	케이블TV 방송국(SO)의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조직 특성이 지역사회 관계 활동에 미치는 영향	2006	한국방송학보
11	케이블방송의 커뮤니티 복지에 대한 케이블방송사와 시청자의 인식	2006	한국방송학보
12	동아시아 문화정체성의 형성과 텔레비전의 소비: 배용준의 일본 팬 커뮤니티 가족 담론을 중심으로	2006	한국방송학보
13	온라인 커뮤니티 내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자아성향(Self-construal)에 따른 관계 중심으로	2006	한국언론정보학보
14	자발적인 시민참여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사례연구	2006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5	사이버 공간의 공동체와 연결망	2006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6	사이버 커뮤니티의 몰입과 정체성이 친커뮤니티행동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2006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7	미니홈피 커뮤니티의 사회문화적 특징: 대학생 이용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7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8	공동체 문제 가깝게 하기를 통한 과학커뮤니케이션 가능성 연구	2007	한국언론학보
19	온라인 대인관계의 정서적 애착(emotional attachment) 형성에 관한 연구: 온라인 커뮤니티의 번개모임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2007	한국언론학보
20	사이버 공간에서의 힘돋우기 실천: 여성의 일상생활과 사이버 커뮤니티	2007	한국언론학보
21	한국 언론의 탐사보도와 시민공동체 형성의 전망: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의 공공저널리즘적 기능과 한계	2008	한국언론학보
22	공동체 라디오와 자기 효능감: 미국 공동체 라디오 KOPN에 대한 민속지학적 연구	2008	한국언론학보
23	블로그의 사회이론적 탐색: '커뮤니티'의 시각에서	2008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4	온라인 커뮤니티 속 오피니언 리더 집단 검증: 이용 동기, 활동 정도, 대인관계 형성 과정의 비교 분석	2009	한국언론학보

사례	제목	연도	게재 학술지
25	아시아 공동체의 문화 정체성: 한국 역사 드라마의 아시아 미디어 수용에 대한 문화연구	2009	한국언론정보학보
26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유형별 사회자본이 정치적 의견표명과 호응에 미치는 효과: 광우병 촛불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2010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	집합지성보다는 커뮤니티?: 한국사의 맥락에서 본 인터넷 문화의 특징	2010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8	정치적 소통의 새로운 전망: 20~30대 여성들의 온라인 정치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11	한국언론학보
29	인터넷 커뮤니티의 자기조직화에 대한 사례 연구: (주)다음 카페를 대상으로	2011	한국언론학보
30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회적 지원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티 소속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2011	한국방송학보
31	모드하기의 문화적 실천에 대한 연구: <엘더스크롤 IV: 오블리비언>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2011	한국언론정보학보
32	정치 정보에 대한 선택적 노출이 태도 극화에 미치는 효과: 비정치적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012	한국언론학보
33	중국동포 커뮤니티 형성과 에스닉미디어의 역할: 커뮤니케이션하부구조의 관점에서	2012	한국언론학보
34	내러티브 프레임과 해석 공동체: '전작권 환수 논란'의 프레임 경쟁과 해석 집단의 저널리즘 담론	2012	한국언론정보학보
35	문학 커뮤니티의 집합적 창작(collective creation) 과정에 대한 생태계적 모형 연구: 온라인 커뮤니티 문장(Munjang)을 중심으로	2012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6	온라인-오프라인 자기개방이 공동체 소속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수평적 집단주의와 수직적 집단주의의 비교	2013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7	비정치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정치적 의견표현	2013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8	다문화사회와 상호주관적 소통권: 미디어 중심에서 커뮤니티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2013	커뮤니케이션이론
39	누구와 소통하는가: 연결된 청소년의 공동체적 삶 역량 계발	2014	한국언론학보
40	펼기하는 자들의 웃음 공동체 되기(becoming)의 가능성: '국정원 파파라치' 사례를 중심으로	2014	한국언론학보
41	온라인 공동체 규범인식과 몰입이 운영방식 만족, 지각된 가치, 오프라인 모임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관계	2014	한국언론학보
42	온라인 공론장에서 토론이 합의와 대립에 이르게 하는 요인 분석: 개방형 공론장과 커뮤니티 공론장의 토론 속의성 비교	2014	한국언론학보
43	한국 보수 언론 및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주노동자 재현과 갈등 은유 분석	2014	한국언론학보
44	사회적 익명성이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의 공동체 신뢰도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인지된 동질성(perceived homophily)과 공감경험(empathy)을 중심으로	2014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45	인터넷 팬 커뮤니티의 규율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가?: 디시인사이드 '주군의 태양' 갤러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5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사례	제목	연도	게재 학술지
46	이주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역량강화: 이주민 미디어와 이주민 미디어 교육을 중심으로	2015	한국언론학보
47	SNS 독서 커뮤니티의 집단지성과 미메시스 실천에 관한 연구: 벤야민의 미메시스와 레비의 집단지성을 중심으로	2015	한국방송학보
48	공동체 미디어 실천과 다문화 정체성의 재구성: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라디오 참여활동과 권능화	2015	한국방송학보
49	항쟁의 에토스와 공동체: 1980년 5월 광주의 마음을 찾아서	2015	한국언론정보학보
50	공동체 라디오 동작FM의 다중참여와 실천사례 연구: 네그리와 하트, 비르노의 다중이론을 중심으로	2016	한국언론학보
51	서울시 마을공동체미디어와 공동체 공론장의 분화와 재구성	2016	커뮤니케이션이론
52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공동체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프리카 TV 〈먹방 BJ 애봉이〉를 중심으로	2016	한국방송학보
53	공동체 라디오와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대한 현장연구: 마포 FM 사례를 중심으로	2016	한국언론정보학보

(2) 메타분석 방법

메타분석 방법론은 ‘~ 뒤에’라는 희랍어 메타(meta)가 의미하듯이, 역사적으로 어떠한 현상이나 학술담론들이 나타났는지 각각의 경향적 특성들과 변화들을 분석하는 방법론이다(강진숙, 2008; 2011). 이러한 경향적 특성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특정 현상이나 학술 경향들의 규칙성뿐 아니라 차이와 특이성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학술담론의 경향들은 단지 담론의 구성방법뿐 아니라 담론 외부의 사회구조적 조건 및 맥락들과 상호 조응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메타분석 방법은 유의미하다. 덧붙여 이 분석방법을 통해 선행 연구의 성과와 흐름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비판적 성찰을 꾀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Allen, 1999). 따라서 본 연구는 메타분석 방법의 유의미성을 고려하여 공동체 미디어 관련 학술담론의 메타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강진숙(2011)의 선행연구에서 수행한 분석방법론을 참고로 하였다.

(3) 신뢰성 검증

신뢰성 검증은 덴진이 그의 저서인 〈리서치 액트(The research act)〉(1970)에서 제시한 삼각검증법(triangulation)을 적용하였다. 삼각검증법은 토지 측량에서 시작되어 캠벨과 피스크(Campbell & Fiske, 1959)의 공동연구에서 제기한 ‘다중속성 다중측정법(multitrait-multimethod matrix)’을 통해 일반적 방법론으로 다루어졌고, 이후 덴진에 의해 다양한 관

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질적 연구의 삼각검증법이 제기되었다(박성희, 2011; 강진숙, 2016). 총 네 가지 범주로 제시된 덴진(Denzin, 1978)의 삼각검증법은 자료원, 연구자, 이론, 그리고 방법론의 신뢰성 검증방법이다(강진숙, 2016). 여기서는 자료원, 이론, 그리고 방법론의 삼각검증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하 강진숙, 2016, 406~408쪽 참조). 우선, 자료원 삼각검증법(data source triangulation)은 다양한 시기와 장소, 다양한 사람들의 상호작용 방식에 근거해 자료들의 다원화를 꾀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는 공동체 미디어 관련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시기와 장소, 그리고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방식에 근거한 학술논문들을 선정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두 번째로, 덴진이 구상한 이론 삼각검증법(theory triangulation)은 서로 다른 이론적 입장을 지닌 공동 관찰자나 패널리스트, 검토자들로 하여금 연구결과를 검토 받는 방법이다(Stake, 1995/2000). 이 방법은 연구자료의 해석 및 평가에 다원적 시각이나 대립되는 이론적 관점을 적용해 보다 풍부한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Patton, 1987). 본 연구자는 학술대회에서 논문발표를 통해 토론자의 이견과 조언들을 성찰적으로 검토 후 논문에 반영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의 삼각검증법(methodological triangulation)은 하나의 연구에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는 검증방법이다(Denzin, 1978). 이 연구에서는 문헌 검토와 메타분석 방법을 병행하여 이론적 논의와 학술담론의 메타분석 결과들을 상호 유기적 연관성에 근거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위의 세 가지 삼각검증법을 적용한 결과 본 연구는 자료원의 다양성을 확충하고 이론의 다양한 관점들을 수정, 반영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또한 방법론의 적용 과정에서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메타분석 방법을 적용해 학술담론의 축적된 성과들을 분석하여 다각도의 분석결과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4. 분석결과

1) 연구주제의 유형별 특징 및 변화 추이 분석

우선, 분석대상에서 연구주제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공동체 및 커뮤니티의 유형에 따라 <표 2>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이것은 크게 네 가지 유형, 즉 온라인 공동체 및 커뮤니티, 지역/시민 공동체, 공동체 미디어, 그리고 소수자 커뮤니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각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공동체 연구주제의 유형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주제 유형은 '온라인

표 2. 공동체 연구주제의 유형별 분류와 초점

주제 유형	주제별 초점	사례
온라인 공동체 (커뮤니티) (26건)	가상 공동체의 구성 원리, 합의	3
	사이버 공동체 윤리	4
	인터넷 커뮤니티, 개설 동기, 속성	5
	사이버 커뮤니티 참여, 이용	7
	가상 커뮤니티 이용 욕구, 행위, 대학생 인터넷 카페	8
	온라인 서포트 커뮤니티, 익명성	9
	온라인 커뮤니티, 자아성향(Self-construal)	13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14
	사이버 공간의 공동체, 연결망	15
	사이버 커뮤니티의 몰입, 정체성	16
	미니홈피 커뮤니티, 대학생 이용자 사례	17
	온라인 커뮤니티의 번개모임 영향력	19
	블로그, 커뮤니티의 시각	23
	온라인 커뮤니티, 오피니언 리더 집단 검증	24
	사이버 커뮤니티의 사회자본, 정치적 의견표명과 호응 효과	26
	커뮤니티, 인터넷 문화	27
	인터넷 커뮤니티, 자기 조직화	29
	게임 커뮤니티, 문화적 실천	31
	비정치적 온라인 커뮤니티, 정치 정보 선택적 노출	32
	온라인 문학커뮤니티, 집합적 창작과정	35
	비정치적 온라인 커뮤니티, 정치적 의견표현	37
	온라인 공동체 규범인식과 몰입	41
	온라인 개방형 공론장, 커뮤니티 공론장의 토론 속의성 비교	42
	사회적 익명성,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의 공동체 신뢰도, 인식	44
	인터넷 팬 커뮤니티, 규율권력 행사	45
	SNS 독서 커뮤니티, 집단지성, 미메시스	47
지역/시민 공동체 (커뮤니티) (14건)	지역공동체구조와 뉴스프레임, 투표행위	2
	케이블TV 방송국(SO)의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지역사회 관계 활동	10
	케이블방송의 커뮤니티 복지 인식	11
	팬 커뮤니티 가족 담론	12
	공동체 문제, 과학커뮤니케이션	18
	탐사보도, 시민공동체 형성	21
	아시아 공동체, 문화 정체성	25

주제 유형	주제별 초점	사례
	내러티브 프레임, 해석 공동체	34
	온-오프라인 자기개방, 공동체 소속감	36
	다문화사회, 커뮤니티 중심 커뮤니케이션	38
	공동체 되기, '국정원 파파라치' 사례	40
	항쟁의 에토스, 공동체	49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공동체 특성	52
	공동체 라디오,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작용	53
공동체 미디어 (5건)	미국 공동체 라디오, 자기 효능감	22
	이주민 미디어	46
	결혼이주여성, 공동체 라디오 참여활동과 권능화	48
	공동체 라디오, 다중참여와 실천	50
	마을공동체미디어, 공동체 공론장	51
소수자 커뮤니티 (8건)	사이버 커뮤니티, 여성 사이트	1
	고령층 온라인 공동체, 성별 차이	6
	여성의 일상생활, 사이버 커뮤니티	20
	20~30대 여성 온라인 정치커뮤니티, 정치적 소통	28
	온라인 커뮤니티, 청소년의 스트레스 감소 영향	30
	중국동포 커뮤니티 형성, 에스닉 미디어	33
	연결된 청소년, 공동체적 삶 역량 개발	39
	온라인 커뮤니티, 이주노동자 재현과 갈등 은유	43

공동체 혹은 커뮤니티'에 관한 담론이다. 여기에는 온라인 공동체에 관한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공동체'와 '~커뮤니티' 형식의 표현들이다. 예컨대, 2001년부터 연구주제로 채택되었던 '가상 공동체'와 '사이버 공동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하지만, 특기할 만한 것은 2004년 이후 공동체 보다 커뮤니티의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가상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버 커뮤니티', '미니홈피 커뮤니티', '온라인 문학커뮤니티', '인터넷 팬 커뮤니티', 'SNS 독서 커뮤니티' 등이 눈에 띄는 사례들로서 보다 집약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주제의 선택 경향은 2000년대 온라인 공간의 네트워크 활동과 조직화 경향의 활성화, 그리고 집단 지성의 사례와 정치 문화적 영향력의 강화 등에서 주요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에 대한 학술담론 다음으로 비중이 큰 것은 온라인

공간을 넘어선 오프라인 공간의 지역/시민공동체에 대한 연구 경향이다. 특히 지역사회와 방송의 관계에 대한 조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케이블 TV와 공동체 의식 및 복지, 탐사보도와 시민공동체, 인터넷 개인방송과 시청공동체 등의 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주체의 유형은 미디어 내의 커뮤니티를 넘어서서 온-오프라인 공동체나 커뮤니티의 상호작용성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보다 역동적인 지역사회 내의 미디어와 이용자 역할을 성찰하게 하는 접근들이다.

세 번째로, ‘공동체 미디어’와 관련한 연구주제는 비교적 최근의 경향으로 분석된다. 분석대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8년에 처음으로 ‘공동체 라디오’가 연구주제로 채택된 이후 2015년과 2016년에 본격적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와 관련된 주제들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대부분 TV보다는 라디오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작용이나 다중의 참여와 실천, 권능화 등에 대한 이슈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서울마을미디어 프로젝트의 실시 이후 청소년과 지역주민 등의 공동체 라디오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이 증폭된 데서 기인한다. 특히 공동체 라디오 중에서도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동작FM이나 마포FM 사례 등은 라디오와 지역사회 간의 상호작용 현장을 파악하는 데 유익한 사례들로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주제는 2001년 이후 처음 다루어지기 시작했지만, 다른 주제 유형들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여성 온라인 커뮤니티, 고령층 온라인 공동체, 청소년 온라인 커뮤니티, 중국동포 커뮤니티,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주노동자 재현과 갈등 은유 등에 대한 연구주제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연구주제들은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와 커뮤니티 현상들을 다루기보다 성별 차이나 청소년의 특정한 정서적 문제들 혹은 이미지 재현의 범주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고려할 것은, 최근에 소수자 혐오현상과 관련한 상반된 입장들의 커뮤니티들이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음에도 이와 관련된 주제들이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또 다른 한편 소수자들 사이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연대 사례보다 개별 소수자들의 사례들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 나아가 장애인이나 성적 소수자, 결혼이주 여성 등의 커뮤니티 사례들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성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공동체 미디어 관련 연구주제 및 초점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온라인 공간의 공동체 및 커뮤니티 활동이 활성화되어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영향력을 고려한 주제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둘째, 온-오프라인 공간의 공동체 및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 지역사회와 미디어의 상호작용적 역할과 집단적

항의 가능성들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졌다. 셋째, 미디어 공동체에 비해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라디오 외의 다양한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여성과 청소년, 이주민을 중심으로 한 소수자 커뮤니티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장애인이나 결혼이주여성, 북한이탈주민이나 성적 소수자 등의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연구 경향을 나타냈다.

2) 연구 방법론의 유형 및 특징 분석

연구 방법론의 유형 및 특징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하위범주, 즉 자료 수집방법과 분석방법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특징을 주제 유형의 기준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의 주제유형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질적 연구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분석방법이 더 빈번히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총 26건 중 15건이 양적 연구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11건에는 질적 연구의 방법론이 적용되었다. 양적 연구에서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의 경우, 대부분 온라인 설문조사가 주를 이루었는데 조사대상은 일부 대학생(4건) 응답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 이용자 일반 대상에 초점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질적 연구의 경우 일부 문헌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이 사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두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들을 병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통적인 현상은 참여관찰, 심층인터뷰, FGI 등의 방법이 다각도로 적용되었다는 점에서 발견된다. 분석방법의 경우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이론적 전통에 따른 유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앞의 방법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경우가 일반적 경향으로 나타났다. 물론 일부의 논문에서 사례분석(4건), 문화기술지/인터넷 민속지학 및 담론분석(2건)의 방법론이 적용되기는 했지만, 극히 미미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온라인 공동체 혹은 커뮤니티와 관련한 학술담론에서 양적 연구에 비해 질적 연구의 방법론이 체계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지역/시민공동체의 주제유형에서는 앞의 경우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왜냐하면, 양적 연구방법의 적용이 저조한 수준(5건)을 보인 반면, 질적 연구의 경우 다양한 분석방법의 적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료수집 방법에서는 심층인터뷰, FGI, 참여관찰, 문서 및 시청각 자료 조사 등이 병행되었다는 점에서 앞의 경우와 유사하지만, 분석방법의 경우 담론분석(사례12), 내러티브 프레임 분석(사례 34), 사례연구(사례 40, 52, 53), 증언/자료/문헌연구(사례49), 문화연구(사례 25) 등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론

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론의 적용 사례는 특히 2006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 이전까지 지역/시민공동체 관련 질적 연구논문이 다른 주제유형에 비해 미미한 비중을 보였기 때문이다. 향후 지역/시민공동체 관련 연구의 다각화를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오프라인의 공동체 미디어 현상들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공동체 미디어의 주제유형은 대부분 질적 연구방법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자료수집 방법의 경우 심층인터뷰, 참여관찰, 문서 및 문건조사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면, 분석방법에서는 총 5건 중 3건이 주로 사례연구 방법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동체 미디어와 관련한 연구는 대체로 2015년 이후 현재 시점에서 게재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새로운 방법론의 적용과 탐구가 필요한 영역으로 파악된다. 분석대상의 기간을 고려할 때, 전기와 중기 시점의 연구들에서는 ‘공동체 미디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즉 이전의 연구들이 주로 ‘커뮤니케이션 공동체’, ‘온라인 커뮤니티’ 등 TV시청자 집단이나 온라인 이용자 커뮤니티 현상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이용자들의 능동적이고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집단지성이나 다중지성을 가능케 하는 ‘공동체의 미디어’ 현상에 집약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제유형에 질적 연구방법론이 적용되는 것은 공동체 미디어 참여자들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즉 특정 전문가나 대의성을 지닌 변혁의 집단이 아니라 지역단위의 능동적 이용자나 청소년, 여성, 이주민, 노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참여와 사회적 관심사가 점차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소수자 커뮤니티 주제 유형에서 양적 연구(4건)와 질적 연구(4건)는 같은 비중을 나타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양적 연구의 경우 대부분 설문조사에 기반한 통계분석을 시도했지만, 질적 연구의 경우에는 주로 담론분석 방법론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담론 심리학 방법론(사례 20), 페어클러프의 비판적 담론분석(사례 28), 그리고 갈등 은유 담론 분석(사례 43)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연구자들의 관심이 주로 여성(사례 20, 28), 중국동포(사례 33), 이주노동자(사례 43) 등을 둘러싼 신문기사의 보도태도나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선입견에 대한 비판적, 성찰적 연구태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유추된다. 이 점에서 소수자 커뮤니티 연구 방법론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실천적 가능성과 차이의 연대를 형성하는 방안들에 대한 문화기술지나 현상학적 분석 방법의 적용 등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론의 적용과 개발이 요구된다. 소수자에 대한 문제설정은 단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멈추는 것에서 나아가 차이의 생성과 특이성을 지닌 긍정적 지위를 긍정할 때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 공동체 미디어 관련 연구 방법론의 유형과 특징

주제 유형	방법론의 유형과 특징		사례
	자료수집방법	분석방법	
온라인 공동체 (커뮤니티) (26건)	문헌 자료수집	문헌 연구	3
	문헌 자료수집	문헌 연구	4
	설문조사: 체계적 할당 표집, 다음 카페 이메일 설문. 3주간 568건 발송, 200건 회수 35% 응답률, 최종 98건 분석	양적 분석: 인터넷 커뮤니티 개설동기와 커뮤니티 속성과의 관계 분석	5
	설문조사: 227명, 사이버 커뮤니티 이용 대학생	양적 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 분석, 평균비교 분석(t-test), 회귀분석	7
	설문조사: 지역 종합대학 커뮤니케이션 교양강좌 수강학생 244명 실시(14건 제외)	양적 분석: 12개 항목 측정, 요인분석, t검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8
	설문조사: 온라인 서베이(재미 한인 기혼 여성 커뮤니티 MissyUSA), 12일간, 301명 참여(8명 사전조사)	양적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T검증, 계층적 회귀분석	9
	설문조사: 4주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설문(79명) 및 성균관대 학생(255명) 중 최종 313명 응답	양적 분석: 총 24개 자아성향 항목에 대한 요인 분석(베리맥스 회전)	13
	사례연구: 사이버 공동체 '7000번 버스를 타는 사람들', '남산타운 21' 사례, 참여관찰, 문헌연구, 심층인터뷰	질적 분석: 사례분석	14
	설문조사: 잇이즈콤 사이트의 28개 포럼(커뮤니티), 게시물 조사	양적 분석: 정서비율과 포럼 속성과의 관계 분석, 요인분석	15
	설문조사: D포탈, 6개 커뮤니티 회원 대상, 2주간 총 348명 응답자 설문	양적 분석: 친커뮤니티 행동척도 분석, 만족도 측정, 다중회귀분석	16
	질적 연구: 20대 대학생 미니홈피 이용자, 부산, 창원 지역 거주 남녀(6명, 3명)학생, 2시간 여, FGI(구조화된 질문지 없음), 심층인터뷰, 전화인터뷰 병행	질적 분석: 인터뷰 내용 분석	17
	설문조사: 질문지 1차 조사, 온라인 커뮤니티 2, 3차 조사	양적 분석: 5가지 변인측정	19
	질적 연구: 문헌조사	질적 분석: 사회학적 접근, 블로그-커뮤니티의 개념화, 이론 자원 분석	23
	설문조사: 이메일 설문, 뉴욕 주 4곳 거주 성인 대상(206건 최종 응답), 미 이후의 사람 검색 기능 사용 메일 주소 추출, 온라인 설문조사 전문 사이트 이용	양적 분석: 2단계 군집분석, 요인분석	24
	양적 연구: 2개 커뮤니티 게시판 조사, 비교분석	양적 분석: 네트워크 연결망 분석	26
	질적 연구: 비교연구	질적 분석: 비교연구 관점의 내용분석, 이해와 해석의 시도	27
질적 연구: 6개 <다음> 카페 조사, 심층인터뷰(7명)	질적 분석: 사례분석, 인터뷰 및 게시판(1년 간) 분석	29	

주제 유형	방법론의 유형과 특징		사례
	자료수집방법	분석방법	
	질적 연구: 게임 카페 참여관찰, 내부자 관점, 익명 유지	질적 분석: 문화연구, 문화기술지	31
	설문조사: 온라인 조사, 서울시장 보궐선거 유권자 300명 대상	양적 분석: 선택적 노출과 태도 극화 관계 분석	32
	질적 연구: 근거이론 방법 적용 심층면접 12명, 60분씩 1~3회, 이메일 면접 병행 20여 건	질적 분석: 오스트롬의 IAD 프레임워크, 사례연구방법	35
	설문조사: 모바일 패널 설문조사	양적 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T검증, SPSS WIN 18.0	37
	설문조사: 온라인패널 설문조사	양적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41
	양적 연구: 특정 기간 내 온라인 공론장의 15개 사건 선정, 토론 및 댓글 수 조사	양적 분석: 내용분석, 댓글 전체의 '토론줄기' 분석	42
	설문조사: 해당 커뮤니티 사전 의뢰, 11일 간 온라인 설문조사, 121명 설문 참여	양적 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Mplus 프로그램 이용	44
	질적 연구: 디시인사이드의 '주군의 태양' 갤러리 관찰, 게시물 관련 사건 및 이슈 기록	질적 분석: 인터넷 민속지학, 담론분석	45
	질적 연구: 참여관찰, FGI, 심층인터뷰	질적 분석: 사례분석, 인터뷰 및 문헌분석	47
지역/시민 공동체 (14건)	양적 연구: 미시간 주 9개 일간지, 선거 관련 뉴스기사	양적 분석: 뉴스프레임 분석	2
	설문조사: 전국 SO 중사자 대상, 최종 106부 설문지 이용	양적 분석: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	10
	설문조사: 서울지역 3개 대학 학생 300명, 284부 분석, 케이블 방송사 홈페이지 조사	양적 분석: 시청자 인식 설문분석(4점 척도)	11
	질적 연구: 배용준 일본 공식 팬 사이트의 게시판 조사	질적 분석: 담론분석	12
	설문조사: 30세 이상, 일반인(수도권 거주), 과학자(수도권, 대덕연구단지), 610명 유효 표집	양적 분석: 상관관계 분석	18
	질적 연구: 기사 자료 수집, 한국언론재단 KINDS 서비스, 언론사 홈페이지 149건의 기사	질적 분석: 메이시와 레비의 온라인 저널리즘 분석방법(하나의 기사를 완결구조로 간주, 전체 기사 수 중 반영된 기사수를 백분율로 표시)	21
	질적 연구: 동아시아 거주 한국 드라마 수용자, FGI, 심층인터뷰, 동경과 북경에서 실시	질적 분석: 인터뷰 내용 분석	25
	질적 연구: 일간지(동아, 한겨레, 한국) 사설, 외부필자 칼럼 수집, 총 80건	질적 분석: 내러티브 프레임 분석, 심층인터뷰 분석	34
	설문조사: 눈영이 표집, 전국 성인 1051명 중 1042명 조사(여성 55.1%)	양적 분석: 개인주의, 집단주의 성향 분석 INDCOL 척도	36
	질적 연구: 문헌조사	질적 분석: 문헌연구, 정책분석	38
	질적 연구: 온/오프라인 '국정원 파파라치' 사례 조사(2013. 9. ~12.), 문서 및 시청각 자료, 참여관찰, 핵심 활동가 인터뷰	질적 분석: 사례연구 방법	40

주제 유형	방법론의 유형과 특징		사례
	자료수집방법	분석방법	
	질적 연구: 기록, 증언 자료 조사	질적 분석: 증언, 자료, 문헌연구	49
	질적 연구: 아프리카TV 개인방송 <먹방 BJ 애봉이>, 시청공동체, 심층인터뷰, 인터넷 참여관찰	질적 분석: 사례연구 방법	52
	질적 연구: 심층인터뷰	질적 분석: 사례연구 방법	53
공동체 미디어 (5건)	질적 연구: 문서자료, 참여관찰, 심층면접	질적 분석: 미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KOPN 사례연구	22
	질적 연구: 심층인터뷰, 참여관찰	질적 분석: 사례연구	46
	질적 연구: 심층인터뷰, 참여관찰, 방송내용 및 큐시트 자료	질적 분석: 인터뷰, 방송내용 및 자료분석, 문헌 연구	48
	질적 연구: 심층인터뷰, 능동적 참여관찰, 문헌 조사	질적 분석: 사례연구	50
	질적 연구: 심층인터뷰, 내외부 보고서 등 문건 조사	질적 분석: 미디어, 팸플릿, 홈페이지 자료 분석, 인터뷰 분석, 문헌연구	51
소수자 커뮤니티 (8건)	양적 연구: 중앙일간지 실명 게재된 16개 여성 사이트 조사	양적 분석: 7일간 여성 사이트 내용분석	1
	설문조사: 구조화된 설문지 구성, 이메일 설문, 208명 응답	양적 분석: 5점 척도 측정, SPSS 11.0 활용 카이스퀘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사용	6
	질적 연구: 참여관찰, 심층인터뷰, 온라인 서베이	질적 분석: 텍스트분석, 담론 심리학 방법론	20
	질적 연구: 심층인터뷰, 이메일/전화 인터뷰	질적 분석: 페어클러프의 비판적 담론분석(CDA)	28
	설문조사: 서울 거주 중·고교 청소년 200명, 3주간 실시	양적 분석: 사회적 지원척도(4가지 하위 영역, 총 24문항), 스트레스 척도, 자아탄력성, 커뮤니티 소속감 척도 측정	30
	질적 연구: 심층인터뷰, 중국동포 신문대표/편집인 11명	질적 분석: 인터뷰 자료분석	33
	설문조사: 서울 강남, 강북 소재 중학교 6학년 394명	양적 분석: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	39
	질적 연구: 이주노동자, 외국인노동자 관련 신문 기사, 기사글 조사	질적 분석: 갈등 은유 담론 분석	43

3) 공동체 미디어 관련 연구의 쟁점 및 과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공동체 미디어 관련 연구들은 2001년 이후 2016년 현재까지 다양한 주제와 연구방법론들을 적용하여 이론적, 현실적 문제들을 다룬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질적 연구의 방법론이 점차 여러 이론적 전통과 방법들을 통해 다각도로 적용, 분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방법론의 체계화 작업과 연구자들 사이의 담론화 과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전제로 여기서는 분석대상의 논문들에서 공동체 미디어 관련 이슈와 쟁점. 그리고 과제가 어떻게 제기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연구주제의 측면에서 온라인 공동체나 커뮤니티에 대한 학술담론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주로 미디어의 기술적 속성과 집단의 정체성에 근거한 공동체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공동체 및 커뮤니티의 유형은 주로 ‘사이버’, ‘인터넷’, ‘게임’, ‘온라인’, ‘SNS’, ‘미니홈피’ 등 미디어의 기술적 형식과 속성에 근거해 명명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나 커뮤니티 회원의 일상성보다는 미디어의 기술 발전과 변화의 거시적인 구조들에 관심을 기울인 데서 기인한다. 이 경우 문제는 공동체의 연결망과 미디어의 기술적 속성이 이용자의 행위들을 규정하고 동일시하는 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불거진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공동체와 커뮤니티에 어떠한 이용자들이 어떠한 의도와 관심사로 연결되었는지 보다 미시적 접근을 수행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공동체와 커뮤니티의 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미시적 운동성을 포착하는 탐구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정체성’(사례 16), ‘자기 조직화’(사례 29), ‘집합적 창작과정’(사례 35), ‘토론 속의성’(사례 42), ‘규율권력’(사례 45), ‘집단지성’(사례 47) 등 이용자들의 행위와 특성을 고려한 접근은 공동체 담론의 이론적 지평을 확대하는 데 시사점을 제시한다.

두 번째로, 지역/시민 공동체와 공동체 미디어의 연계성을 고려한 탐색적 접근이 요구된다. 앞의 주제유형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 공동체 연구에 비해 지역/시민공동체나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선행 연구의 비중은 저조한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과거와 달리 온라인 공간에서의 이용자 참여와 활동이 활성화된 결과에 기인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 사회 문화적 참여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데서 기인한다. 물론 다양한 지역 공동체의 행사와 이벤트들은 지속적으로 개최되지만,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는 이용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제한적인 면이 있다. 왜냐하면, 혈연과 지연에 기반한 전통적인 공동체와 다른 새로운 온/오프라인 공동체의 출현과 연계성 혹은 차이점 등에 대한 학술담론들의 생산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내 지역공동체뿐 아니라 아시아 공동체 등과 같은 글로벌 네트워크에 대한 새로운 담론의 생성도 요구된다. 네그리와 하트(2000/2001)가 강조하듯이, 이제 글로벌 사회의 지형은 영토 중심의 제국주의가 아니라 다국적 기업 중심의 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영토적 경계가 없으면서도 전 세계의 도처에 있는 사회생활을 지배하는 전형적인 생체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지배 권력과 작동방식에 대한 고려는 새로운 공동체의 삶 정치를 형성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가 된다.

세 번째로, 소수자 커뮤니티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방법론의 적용과 실험적 접근이 요구된다. 주지했듯이, 소수자 커뮤니티 관련 논문들은 여러 소수자 유형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분석대상으로 선택된 8건의 논문들은 여성(사례 1, 20, 28), 고령층(사례 6), 청소년(사례 30, 39), 중국동포(사례 33), 이주노동자(사례 43)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다양한 재현방식들을 탐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수자 커뮤니티 연구의 중요한 자원들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방법론의 측면에서 더 다양한 질적 연구의 이론적 전통과 방법론의 적용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양적 연구는 차치하더라도 질적 연구의 경우 주로 담론분석과 인터뷰 자료 분석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질적 연구의 방법론으로서 소수자 담론분석은 언술과 은유가 작용하는 현장의 메커니즘과 갈등구조를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 여기서 나아가 소수자 커뮤니티의 참여 주체들과 관계맥락, 온/오프라인 장에서 생성되는 정서의 변이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소수자 커뮤니티 이론과 사회적 현장의 문제점을 상호작용적으로 연계하는 근거이론이나 내·외부자적 관점에서 소수자 커뮤니티 문화의 특이성을 탐색할 수 있는 문화기술지 방법,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소수자 혐오현상에 대한 현상학적 분석방법 등이 적용 가능한 질적 연구의 방법론들이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론들의 실험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존재론적 규정이나 실천 사례들에 대해 보다 역동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소수자를 약자나 보호대상으로 전제하고 설문조사와 커뮤니티의 활동들에 접근할 경우, 소수자들의 특이성과 집합적 실천의 가능성과 의미들을 간과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수자 커뮤니티 관련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담론분석뿐 아니라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현상학적 접근 등 다양한 방법론의 적용이 요구된다.

5. 맺음말

이상과 같이 2001년부터 2016년 11월 현재까지 국내 학술등재지들에 게재된 공동체 미디어 관련 학술담론들을 탐구하였다. 지난 15년여 기간 동안 4개 학회의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공동체 미디어 관련 학술담론들은 주제, 연구방법론, 그리고 쟁점 등 세 가지 연구문제에 근거해 메타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는 과거의 공동체 미디어 학술담론들의 경향성과 특이점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과제들을 해결하고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 있다.

분석결과, 우선 공동체 미디어 학술담론은 크게 네 가지 주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즉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 지역/시민공동체, 공동체 미디어, 그리고 소수자 커뮤니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중에서도 온라인 공동체나 커뮤니티 연구가 다른 주제 유형에 비해 큰 비중을 나타내는 한편, 이주민 미디어와 다중의 공동체 라디오 참여 등에 대한 소수자들의 능동적 미디어 활동에 대한 학술담론들이 최근 5년 이내의 기간에 활발히 개진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공동체 미디어 학술담론의 연구방법론은 자료수집과 분석방법의 측면에서 유형별 차이와 특징을 나타냈다. 온라인 공동체나 커뮤니티 주제 유형에서는 질적 연구에 비해 양적 연구의 방법론이 주로 사용되었다면, 지역/시민공동체나 이주민 미디어, 그리고 소수자 커뮤니티 담론들에는 주로 질적 연구방법론이 적용되었다. 특히 이주민과 소수자 커뮤니티의 공동체 미디어 참여와 활동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론, 즉 담론 심리학 분석, 비판적 담론분석, 사례분석 등 보다 세분화된 질적 연구방법론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경향은 소수자와 다중 등의 특이성에 주목한 공동체 미디어 연구들의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미디어 학술담론의 쟁점 및 과제는 공동체 미디어의 기술적 속성과 연결망의 낙관적 가능성에 기대는 것을 넘어서서 이용자의 행위와 실천의 가능성에 더 밀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온라인 공동체 미디어의 기술적 속성과 구성원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진단을 넘어서서 더욱 분화된 공동체 구성원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공동체 미디어의 가능성을 탐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미디어 학술담론이 보다 체계적인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현실의 지역공동체와 구성원들의 현안과 쟁점들을 다루는 논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공동체 미디어 학술담론의 점진적 증가 현상은 현실적으로 국내 이주민들의 공동체 형성과 미디어 활동이 활성화된 사회구조적 요인들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 특히 2000년대 활성화된 이주민 정책뿐 아니라 최근 몇 년간 결혼이주여성들이 미디어교육과 공동체 라디오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 경향들은 대표적인 예다. 덧붙여 여성과 성적 소수자 등 소수자 시민운동단체의 활성화 역시 세분화된 공동체 미디어 담론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변수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의 제한점은 학회의 등재학술지 중 일부 학회의 학술담론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다양한 공동체 미디어 담론들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특히 2007년도에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언론과학연구〉의 경우, 지역사회의 미디어와 이용자 환경에 대한 두드러진 학술논문들이 게재되고 있지만 분석대상의 분량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이주민,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성

소수자 등 다양한 소수자들의 공동체 미디어 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언론과학연구〉, 〈한국청소년연구〉, 〈다문화사회연구〉 등을 비롯해 다양한 학술담론들을 메타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의의는 지난 15년 여 동안의 공동체 미디어 학술담론들의 흐름과 방법론들을 메타분석함으로써 과거의 경험들을 성찰하고 더 나아가 공동체 미디어와 다중 참여의 확장을 위한 학문적, 현실적 과제들을 정립할 때에 소박한 지도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공동체 미디어 교육의 이론적 지평을 넓히는 것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참고 문헌

- 강진숙 (2009). 장애인 미디어교육에 대한 인식사례 연구: 장애인 미디어교육 교사 및 학습자와의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46호, 148-176.
- 강진숙 (2012). SNS 속도문화와 창조적 저항: 비릴리오와 키틀러의 속도와 주체에 대한 사유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58호, 31-54.
- 강진숙 (2016).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교육 연구의 주사위: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지금.
- 강진숙·소유석 (2016). 공동체 라디오 동작FM의 다중참여와 실천사례 연구: 네그리와 하트, 비르노의 다중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0권 5호, 292-318.
- 강진숙·이은비 (2013). 공동체라디오 DJ의 미메시스적 실천과 유희성 연구: 창신동 라디오방송국 <덤>을 중심으로. <방송문화연구>, 25권 2호, 37-66.
- 구교태 (2005). 가상 커뮤니티 이용 욕구(needs)와 행위(behavior)에 관한 연구: 대학생들의 인터넷 카페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0호, 7-33.
- 구자순 (2005). 고령층의 온라인 공동체 활동에 관한 연구: 남성과 여성 간에 차이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6호, 241-272.
- 권상희·방경화 (2006). 온라인 커뮤니티 내의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자아성향(Self-construal)에 따른 관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36호, 423-462.
- 권지현·김명혜 (2015). 인터넷 팬 커뮤니티의 규율권력이 어떻게 행사되는가?: 디시인사이드 '주군의 태양' 갤러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2권 2호, 5-50.
- 김경모·정은령 (2012). 내러티브 프레임과 해석 공동체: '전작권 환수 논란'의 프레임 경쟁과 해석 집단의 저널리즘 담론. <한국언론정보학보>, 57호, 109-136.
- 김경화·김주연 (2004). 인터넷 커뮤니티 개설자의 개설동기와 커뮤니티 속성에 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3호, 5-37.
- 김민하 (2008). 한국 언론의 탐사보도와 시민공동체 형성의 전망: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의 공공저널리즘적 기능과 한계. <한국언론학보>, 52권 4호, 105-128.
- 김상배 (2010). 집합지성보다는 커뮤니티?: 한국사의 맥락에서 본 인터넷 문화의 특징.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권 4호, 45-92.
- 김소정·양은주·권정혜 (2013). 온라인-오프라인 자기개방이 공동체 소속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수평적 집단주의와 수직적 집단주의의 비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0권 4호, 5-42.
- 김수아 (2007). 사이버 공간에서의 힘돌리기 실천: 여성의 일상생활과 사이버 커뮤니티. <한국언론학보>, 51권 6호, 346-380.
- 김유정 (2005). 사이버 커뮤니티 참여와 이용에 대한 이용과 충족 연구. <한국언론학보>, 49권 3호, 291-317.
- 김유정·김용찬·김지현·우지화·정혜선·손혜영 (2012). 중국동포 커뮤니티 형성과 에스닉미디어의 역할: 커뮤니케이션 하부구조의 관점에서. <한국언론학보>, 56권 3호, 347-375.

- 김유정·조수선 (2001). 사이버 커뮤니티로서의 인터넷 사이트 연구: 여성 사이트에 대한 탐색적 접근. <한국언론학보>, 45권 3호, 5-38.
- 김은규 최성은 (2013). 영국 공동체라디오 정책 고찰을 통한 국내 정책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 30권, 113-158.
- 김은규 최성은 (2013a). 정규방송 도입 이후 공동체 라디오 운영구조 및 정책에 대한 평가적 고찰: 전문가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13권 3호, 184-214.
- 김지연·강진숙 (2015). SNS 독서 커뮤니티의 집단지성과 미메시스 실천에 관한 연구: 벤야민의 미메시스와 레비의 집단지성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9권 4호, 225-257.
- 김학수 (2007). 공동체 문제 가깝게 하기를 통한 과학커뮤니케이션 가능성 연구. <한국언론학보>, 51권 4호, 181-198.
- 노정규·민영 (2012). 정치 정보에 대한 선택적 노출이 태도 극화에 미치는 효과: 비정치적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언론학보>, 56권 2호, 226-248.
- 박경섭 (2015). 항쟁의 에토스와 공동체: 1980년 5월 광주의 마음을 찾아서. <한국언론정보학보>, 71호, 33-51.
- 박근서 (2011). 모드하기의 문화적 실천에 대한 연구: <엘더스크롤 IV: 오블리비언>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55호, 100-118.
- 박근영·최운정 (2014). 온라인 공론장에서 토론이 합의와 대립에 이르게 하는 요인 분석: 개방형 공론장과 커뮤니티 공론장의 토론 속의성 비교. <한국언론학보>, 58권 1호, 39-69.
- 박성복 (2007). 온라인 대인관계의 정서적 애착(emotional attachment) 형성에 관한연구: 온라인 커뮤니티의 번개모임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권 3호, 407-429.
- 박영득·이정희 (2013). 비정치적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정치적 의견표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0권 2호, 73-109.
- 박유진·김재휘 (2006). 사이버 커뮤니티의 몰입과 정체성이 친커뮤니티행동 및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호, 41-77.
- 박정의 (2001). 지역공동체 구조와 뉴스프레임이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정보학보>, 17호, 37-60.
- 박준식 (2001). 가상 공동체의 구성 원리와 합의: 지구적 두뇌의 관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8호, 47-84.
- 박창식·정일권 (2011). 정치적 소통의 새로운 전망: 20-30대 여성들의 온라인 정치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5권 1호, 219-244.
- 반명진·김영찬 (2016). 공동체 라디오와 지역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작용에 대한 현장연구: 마포 FM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8호, 79-115.
- 배상률·이창호 (2016).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여가문화 및 팬덤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적 연구: 페이스북을 활용한 청소년 집단지성 토론단 운영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7권 3호, 189-218.

- 손혜영·심홍진·황유선 (2011).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회적 지원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커뮤니티 소속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방송학보>, 25권 1호, 116-158.
- 송경재 (2006). 자발적인 시민참여 사이버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사례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호, 221-255.
- 안진·채영길 (2015). 공동체 미디어 실천과 다문화 정체성의 재구성: 결혼이주여성의 공동체 라디오 참여활동과 권능화. <한국방송학보>, 29권 6호, 94-136.
- 안진·최영 (2016). 인터넷 개인방송 시청공동체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프리카 TV <떡방 BJ 애봉이>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0권 2호, 5-53.
- 양소은·김은미 (2014). 누구와 소통하는가: 연결된 청소년의 공동체적 삶 역량 개발. <한국언론학보>, 58권 1호, 5-38.
- 양은경 (2006). 동아시아 문화정체성의 형성과 텔레비전의 소비: 배용준의 일본 팬 커뮤니티 가족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0권 3호, 198-238.
- 양정혜·노수진 (2012). 휴먼 다큐멘터리가 재현하는 장애인: KBS 인간극장에 나타난 장애인 내러티브 분석. <한국방송학보>, 26권 3호, 371-415.
- 오미영·차동필 (2006). 케이블TV 방송국(SO)의 지역사회 공동체의식과 조직 특성이 지역사회 관계 활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0권 4호, 156-197.
- 윤명희 (2007). 미니홈피 커뮤니티의 사회문화적 특징: 대학생 이용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1호, 83-122.
- 윤명희 (2008). 블로그의 사회이론적 탐색: '커뮤니티'의 시각에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5권 4호, 121-169.
- 윤선희 (2009). 아시아 공동체의 문화 정체성: 한국 역사 드라마의 아시아 미디어 수용에 대한 문화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46호, 37-74.
- 윤수진·손동영 (2014). 사회적 익명성이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원의 공동체 신뢰도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인지된 동질성(perceived homophily)과 공감경험(empathy)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1권 4호, 189-226.
- 윤해진 (2006). 온라인 서포트 커뮤니티에서의 인지된 익명성: 계층적 개념구조와 공적인 자기노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50권 6호, 305-332.
- 이영음 (2003). 사이버 공동체에서의 윤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2호, 187-220.
- 이은바·강진숙 (2013). 차이와 소수성을 위한 이주노동자 미디어교육에 대한 질적 연구: MWTV 이주노동자 미디어교육 교수자 및 학습자와의 질적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권 6호, 441-468.
- 이은바·강진숙 (2013). 차이와 소수성을 위한 이주노동자 미디어교육에 대한 질적 연구: MWTV 이주노동자 미디어교육 교수자 및 학습자와의 질적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57권 6호, 441-468.
- 임정수 (2006). 케이블방송의 커뮤니티 복지에 대한 케이블방송사와 시청자의 인식. <한국방송학

- 보), 20권 4호, 231-266.
- 임종섭·김진희·최수연·원용진 (2014). 온라인 공동체 규범인식과 몰입이 운영방식 만족, 지각된 가치, 오프라인 모임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관계. <한국언론학보>, 58권 5호, 153-179.
- 장덕진·배영 (2006). 사이버 공간의 공동체와 연결망.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9호, 175-219.
- 장용호·공병훈 (2012). 문학 커뮤니티의 집합적 창작(collective creation) 과정에 대한 생태계적 모형 연구: 온라인 커뮤니티 문장(Munjang)을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9권 3호, 163-218.
- 장유정 (2016. 2.). <노년세대의 갈등유형과 소수자 미디어교육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중앙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영아·강정환 (2010). 사이버 커뮤니티에서 유형별 사회자본이 정치적 의견표명과 호응에 미치는 효과: 광우병 촛불집회 사례를 중심으로.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7권 3호, 177-226.
- 정의철 (2015). 이주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역량강화: 이주민 미디어와 이주민 미디어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9권 2호, 257-286.
- 채영길 (2013). 다문화사회와 상호주관적 소통권: 미디어 중심에서 커뮤니티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커뮤니케이션이론>, 9권 4호, 136-175.
- 채영길 (2014). 한국 보수 언론 및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주노동자 재현과 갈등 은유 분석. <한국언론학보>, 58권 4호, 210-237.
- 채영길·김용찬·백영민·김예란·김유정 (2016). 서울시 마을공동체미디어와 공동체 공론장의 분화와 재구성. <커뮤니케이션이론>, 12권 2호, 4-46.
- 최윤정 (2009). 온라인 커뮤니티 속 오피니언 리더 집단 검증: 이용 동기, 활동 정도, 대인관계 형성 과정의 비교 분석. <한국언론학보>, 53권 4호, 372-394.
- 한선 (2014). 쫓겨나는 자들의 웃음 공동체 되기(becoming)의 가능성: '국정원 파파라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8권 3호, 59-86.
- 한선·이오현 (2008). 공동체 라디오와 자기 효능감: 미국 공동체 라디오 KOPN에 대한 민속지학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2권 5호, 275-294.
- 황슬하·강진숙 (2014). 온라인 여성호명 담론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방송학보>, 28권 4호, 356-388.
- 황주성·오주현 (2011). 인터넷 커뮤니티의 자기조직화에 대한 사례 연구: (주)다음 카페를 대상으로. <한국언론학보>, 55권 5호, 261-285.
- Campbell, D. T., & Fiske, D. W. (1959).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by the multitrait-multimethod matrix. *Psychological Bulletin*, 56, 81-105.
- Denzin, N. K. (1978).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New York, NY: McGraw Hill.
- Kittler, F. (1986). *Grammophon, Film, Typewriter*. Berlin: Brinkmann & Bose.
- Matsaganis, M. D., Katz, V. S., & Ball-Rokeach, S. J. (2011). *Understanding ethnic media: Producers, consumers, and societies*. Los Angeles, CA: Sage.

Negri, A., & Hardt, M. (2001). *Multitude: War and democracy un in the age of empire*.

조정환 정남영·서창현 (역) (2008). <다중: 제국이 지배하는 시대의 전쟁과 민주주의>. 서울: 세종서적.

Patton, M. Q. (1987). *How to use qualitative methods in evaluation*. Newbury Park, CA: Sage.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홍용화·노경주·심종희 (역) (2000). <질적 사례연구>. 서울: 창지사.

투고일자: 2016. 11. 28. 게재확정일자: 2017. 1. 18. 최종수정일자: 2017. 1. 23.

The Study on Methodology and Flow of Discourses of Community Media

Focusing on the Meta-analysis of Topics, Methods, and Issues of Academic Journals

Jin Suk Kang

Professor, School of Media & Communication, Chung-Ang University

Online communities have become playgrounds for enjoyment and political public spheres as well as have been vitalized by participation of diverse users, which shows that users of online communities experience participatory democracy and new subjects who project the politic of everyday life eventuall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at how phenomenon from above have been revealed in the academic discourses and seek the ways for development of the theory and methodology of community media research. To do this, I analyze that features and tendencies of academic discourses which have historically been accumulated through applying method of meta-analysis into topics, methods, and issues in the precedence studies. Data is centered on Journals of the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Korean Association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tudies, and the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The reason why I choose these journals is that they have a long history of the publication compared to other journals, thus, I can collect various related articles. Total of 53 Samples are selected after input keywords '공동체' and 'Community'. This study makes a contribution by offering the preliminary data in order to seek the ways for revitalization of local communities and for the future theories and methodologies of community media through researching on precedence studies having piled from 2001 when the first article about community media was published to November 2016.

KEYWORDS Community Media, Discourse, Meta-theory, Thesis Subject, Methodology